

경남 교육 소식



김해유아체험교육원, 다시 돌아온 제비 체험원 하늘 날아

본원김해유아체험교육원(원장 박희자)은 지난해 품앗이 5월호에(7,8월) 소개된 제비 식구들이 올해 체험원을 다시 찾아와 세끼의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 체험원 곳곳에 현재 20여 마리 제비가 서식하고 있다.

올 봄, 작년에 김해유아체험교육원에 머물던 제비 20마리가 잔디광장에 설치된 둥에 지어 온 제비집에 다시 나타났다. 알을 품고 부지런히 먹이를 나르는 아빠, 알마 제비의 분주한 모습이 활짝 웃음만 내밀고 있던 아기 제비들이 어느새 자라나 드디어 날개 짓 연습을 하며 땅으로 내려와 매일 아침 체험원 하늘을 수놓고 있다.

체험원자들은 잔디광장에서 제비를 발견하고 "선생님, 저기 아기 제비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알마 기다리나 봐요"라며 아기제비를 발견한 기쁨을 나타냈으며, 인솔 교원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제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며 본원 체험교육에 만족을 나타냈다.

생태체험활동을 하며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제비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제비의 생활 모습을 함께 알아보는 기회는 유아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는 본원의 교육비전인 '희망의 나라를 펼치는 자연 속 체험놀이'의 실천으로 김해유아체험교육원이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체험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경남유아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노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남유아교육원, 교원 대상 인성교육 연수

경상남도유아교육원(원장 박환민)은 경상남도유아교육원 대강당에서 7월 7일, 7월 14일 양일에 걸쳐 공·사립유치원 교원 600명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교원들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가 법제화됨에 따라 연수 기회 제공과 아울러,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마련하고 인성교육 방법 제시를 통해,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인성교육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다.

연수 강사로서는 전남대학교 김영옥 교수님의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방안'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하경연 교수님의 '술·유치원과 인성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술·유치원 운영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있어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알게 되어 유아 인성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통, 공감으로 경남 미래교육 만든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취임 3주년 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일 오후 풀판 엠베서디 정원 호텔 2층 대연회에서 '2017. 2차 교육감과 함께하는 원탁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남 동부권 학교운영위원 약 500여 명이 참석해 '경남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박종훈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이해 교육공동체와 소통·공감으로 경남교육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한 2번째 행사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경남 미래교육의 정책과 방향을 선도하려는 교육감의 의지가 담겼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원탁토론회는 박종훈 교육감도 참여했으며 9명 단위로 원탁에 둘러앉아 인문과 상호토론을 하면 각 위원에 배치된 토론진행자(패시비티어)가 제시된 주장을 정리해서 공유했다. 토론에서 경남 미래교육을 위해 학과직자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경남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경남 교육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위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1,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운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학운위 활동을 소수의 학과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가 다양한 정보를 해서 전체 학과부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위원은 "학운위 위원으로 선출될 위원의 경우 학운위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지역별·지역별 학운위 위원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칭하기도 했다. 학운위 활성화 토론 후에는 진해 용원초등학교 조원인 위원장과 창원용유고등학교 정현정 위원장이 학교 차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운위 활동 사례를 발표해 참가자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남교육 정책 방향 토론 시간에 한 위원은 "현재 경남교육청 추진 사업 중 행복학교(행복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평가하고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창의적 사고이고 이를 길러주기 위해 아이들 개인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행복학교이므로 이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펼치는 사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앞으로 독서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 체험 및 교육, 지역격차 해소, 수업과 평가를 통한 역량 강화,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남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회장(진해대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취임 3주년 기념으로 교육공동체의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이 더 이상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전체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고, 교육자치의 꽃은 학교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내주시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분석하고 정리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1,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운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학운위 활동을 소수의 학과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가 다양한 정보를 해서 전체 학과부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위원은 "학운위 위원으로 선출될 위원의 경우 학운위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지역별·지역별 학운위 위원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칭하기도 했다. 학운위 활성화 토론 후에는 진해 용원초등학교 조원인 위원장과 창원용유고등학교 정현정 위원장이 학교 차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운위 활동 사례를 발표해 참가자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남교육 정책 방향 토론 시간에 한 위원은 "현재 경남교육청 추진 사업 중 행복학교(행복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평가하고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창의적 사고이고 이를 길러주기 위해 아이들 개인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행복학교이므로 이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펼치는 사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앞으로 독서교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 체험 및 교육, 지역격차 해소, 수업과 평가를 통한 역량 강화,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남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회장(진해대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취임 3주년 기념으로 교육공동체의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교육이 더 이상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전체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미래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고, 교육자치의 꽃은 학교자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내주시 소중한 의견은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분석하고 정리해서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1,000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학운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학운위 활동을 소수의 학과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가 다양한 정보를 해서 전체 학과부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위원은 "학운위 위원으로 선출될 위원의 경우 학운위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뒤 "지역별·지역별 학운위 위원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자칭하기도 했다. 학운위 활성화 토론 후에는 진해 용원초등학교 조원인 위원장과 창원용유고등학교 정현정 위원장이 학교 차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운위 활동 사례를 발표해 참가자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남교육 정책 방향 토론 시간에 한 위원은 "현재 경남교육청 추진 사업 중 행복학교(행복 교육자)가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평가하고 "미래 사회에 가장 필요한 역량이 창의적 사고이고 이를 길러주기 위해 아이들 개인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행복학교이므로 이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남교육청이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을

경남도교육청, 중도입국학생 생활 안정 도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일 소외의원에서 경상남도사회, 경상남도약사회, 버리(법무법인)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 가정 중도입국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학생'이란 국제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 생활하다 출생한 자녀 또는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 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자녀, 외국인 자녀 등으로 언어와 대한민국 교육용 시스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말한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재정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입국 학생들에게 의료, 투약, 법률상담을 무료 지원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지역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생활 안정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2017년 6월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거나 한국국적을 취득 중이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도입국 학생은 2천명여로 파악되며, 이들 대부분은 비의료자들로서 병원 진료 시 큰 비용이 발생해 치료 시기를 놓쳐 건강상태가 악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도입국 학생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교사가 인근 병원과 지자체에서 간담회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사업을 요청해 지원받아 하되만 정보까지 부족해 아직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제 경남교육청은 의료계와 협력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중도입국 학생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원할 주요 내용은 중도입국 학생 밀집지역에 거점병원을 지정해 무료 의료진료를 하고 중도입국 학생이 거점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인근 '중도입국 학생지원 지정약국'에 제시하면 무료 의료약을 제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한다.

또한, 법무법인 버리는 도내 8,300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중 내방자에 한해 매주 토요일, 경남교육청 제2청사 3층 다문화 교육센터 3층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소속 변호사 4명이 정해진 시간에 상주하며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버리는 영진지역 베트남 진출기업의 자문 변호사를 맡는 로펌으로서 베트남의 여건과 환경을 잘 분석하고 있어 도내 다문화가정의 40% 이상이 베트남인인 것을 고려하면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이 우리 사회와 공교육 내내 안정적으로 적응하기를 바라며 또한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과 미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신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각 협회(기관)와 지속적인 동반 관계를 통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중도입국학생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Advertisement for '핑킹블럭' (Pinking Block) educational toys.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blocks and structure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and features of the toys. The ad includes a table of prices for different sets of blocks.